조선대 취업률, 전남대 앞질렀다

조선대 51.5%·전남대 49.6%… 동신대 지역 4년제중 1위

광신대 광주권 종교 계열 두각

전남대의 취업률이 조선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발표된 2011년 대학정보공시 취업률에 따르면 전남대는 49.6%로, 조선대 51.5%에 비해 1.9%포인트나 뒤진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취업률은 전남대가 46.2%로 조선대 43.6%보다 앞섰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10년 8월과 올해 2월 졸업한 전국 556개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55만9000명의 취업률을 조사한 '2011 대학·계열별 취업률'을 24일 발표했다. 이 내용은 25일 대학정보공시사이트인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에 공개된다.

취업률은 교과부가 국·공·사립대를 대상으로 시행해 온 교육역량강화사업의 주요 지표다. 특히 교과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평가순위 하위대학 선정 지표'에 취업률을 충원율(30%) 다음으로 높은 20%의 가중치를 둬 하위 15% 대학을 선정하는데 중요 지표로 삼고 있다.

이 때문에 각 대학들은 지난 1년 동안 4년제, 2년제 할 것 없이 사활을 걸고 취업률 제고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대학정보공시 취업률에 따르면 4년제 일반 대학 전국 평균은 54.5%이며, 전문대학은 60.7%였다.

동신대는 65.7%의 취업률로 광주·전남권 4년제 일반 대학 가운데 1위를 차지, 3년 연속 취업률 정상을 기록했다. 특히 동신대는 졸업자 1000명 이상 2000명 미만의 전국 대학 중 10위에 올랐다.

종교 계열에서는 광신대가 55.3%로 광주카톨릭대 52.5%, 호남신학대 42.6%에 앞서 광주권에서 가장 높았다.

광주·전남지역 4년제 주요 대학(일반) 취업률은 ▲동신대 65.7% ▲광주여자대 63.7% ▲초당대 62.6% ▲광주대 61.5% ▲남부대 61.1% ▲호남대 60.1% ▲대불대 52.5% ▲조선대·목포대 51.5% ▲순천대 50.6% ▲전남대 49.6% 등의 순이었다.

광주·전남지역 전문대학에서는 한국폴리텍V대학 광주캠퍼스가 90.6%로 가장 높았다.

이어 조선간호대학과 기독간호대학이 각각 84.0%와 74.%로 보건계열이 타 분야보다 높은 취업률을 보였다. 이중 조선간호대학은 전국 1000명 미만 대학 중 1위에 올랐다. 교과부는 지난해부터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 기준으로 취업률 통계를 냈다.

대학별로 보면 기능대학(26개)의 취업률이 85.5%로 가장 높았고, 산업대학(17개)의 취업률이 65.3%로 다음이다. 151개 전문대학의 취업률은 60.7%로 186개 일반대학 취업률 54.5%를 6.2%포인트 앞섰다.

국공립대 취업률이 59.4%로 사립대 58.5%보다 다소 높았고, 남성 취업률이 62.2%로 여성 55.1%보다 7.1%포인트 앞섰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여직원 성희롱 소방서장 직위해제

"감찰 조사결과 징계 여부 결정"

전남도소방본부

전남도소방본부는 부하 여직원에게 성희롱을 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모 소방서장을 직위해제했다.

도 소방본부는 24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당 소방서장이 부하 여직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하고 부당하게 인사조치까지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정상적인 업무를 보기 힘든 만큼 일단 직위해제 3개월을 결정했다.

도 소방본부는 이번 직위해제 조치와는 별도로 해당 사안에 대해 진행 중인 감찰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에 대한 징계조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입장이 맞서고 있는 해당 사안의 진위와는 상관없다"며 "진행 중인 감찰조사 결과에 따라 사실이 확인되면 징계위원회를 열어 적법한 조치가 취해질 것이다"고 말했다.

해당 소방서장은 지난해 11월 임용된 여직원에게 술자리에서 폭탄주를 마시게 하고 특정 신체 부위를 비하하는 발언을 했으며 여직원이 술자리를 거부하자 원치 않은 근무지로 전보 조치까지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감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해당 서장은 "그런 사실이 없으며 인사 발령은 인력 수급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감찰 조사에서 모든 것을 밝히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나원참 〈8387〉 김종두

2학기 휴학생 54.8%

"비싼 등록금 때문에…"

알바몬, 554명 설문

2학기 휴학생들은 학교에 등록하지 않기로 한 이유로 등록금에 대한 부담을 가장 많이 꼽았다.

24일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이 대학생 554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의 24.4%가 '2학기에 휴학한다'고 응답했으며, 이 가운데 54.8%는 '학비 부담'을 주된 이유로 밝혔다.

'취업 준비를 위해'라는 이유를 든 응답자가 15.6%로 뒤를 이었으며 '졸업시기를 미루기 위해'(10.4%), '외국연수·배낭여행을 위해'(7.4%) 등의 답변이 잇따랐다.

휴학을 하지 않는 학생 중에서도 '2학기 등록금을 아직 다 마련하지 못했다'는 응답자가 49.9%를 차지해 '다 마련했다'(50.1%)는 응답자의 수와 비슷했다.

등록금 마련 방법(복수응답)으로는 '부모의 지원'(53.7%), '아르바이트로 충당'(51.8%), '장학금'(31.3%), '학자금 대출'(28.2%) 순으로 응답이 나왔다. 등록금 액수에 대해서는 '비싸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90.1%로 '적절하다'(8.8%), '싸다'(1.1%)는 답변보다 많았다.

응답자들이 생각하는 한 학기 적정 등록금은 평균 182만4천원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대학 수능원서 접수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 응시원서 접수가 시작된 24일 광주시교육청 1층 별관에 마련된 접수창구에서 검정고시 출신자 등 예비 수험생들이 응시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원서 접수 기간은 이날부터 9월8일까지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임건우 보해 전 회장 구속적부심 기각

광주지법 형사3부(송희호 부장판사)는 24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된 보해양조 임건우(64) 전 회장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를 고려해 임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이 적법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회장은 지난 1~2월 보해저축은행 유상증자 과정에서 어음 양도 등 방식으로 자금을 끌어들여 보해양조에 420억원가량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아 구속됐다.

임 전 회장은 거액의 차명대출, 횡령 등의 혐의도 받았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홈스테이 중국인 여행객 주인없는 틈타 금반지 슬쩍

북부경찰, 입건

광주북부경찰은 24일 여행중 머무르던 가정집에서 귀금속을 훔친 중국인 장모(여·36)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20일 광주시 북구 권모(여·54)씨의 집 장롱에 보관돼 있던 금반지와 금팔찌 등 총 3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관광을 위해 지난달 중국에서 입국해 지인의 소개로 권씨의 집에 묵던 장씨는 권씨 가족이 해외로 여행간 틈을 노려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장씨는 경찰에서 "권씨가 20일까지 돌아오기로 약속했는데, 아무런 연락도 없이 오지 않아 화가 나서 귀금속을 변기에 넣고 물을 내렸다"고 진술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벼 납품 서류 위조 15억 꿀꺽

보성경찰, 양곡업자 구속

보성경찰은 24일 벼 납품 서류를 허위로 꾸며 농협으로부터 15억원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영농조합법인 대표 윤모(44)씨를 구속했다.

양곡업자인 윤씨는 2008년 1월 A농협으로부터 벼 20kg들이 3만 포대를 B농협 미곡처리장에 보내는 납품을 수주받은 다음 벼를 보내지 않고도 마치 보낸 것처럼 허위 거래명세표를 작성해 A농협으로부터 1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윤씨는 B농협으로부터 벼가 납품되지 않은 것에 대해 항의를 받자 같은 해 9월 알고 지내던 A농협 직원 이모(36·구속)씨에게 A농협이 J농협 미곡처리장을 통해 B농협에 벼 6000포대(약 3억원)를 납품할 것처럼 납품 의뢰서를 위조하게 해 J농협이 B농협에 벼를 보내도록 한 뒤 J농협에는 돈을 주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윤씨는 편취한 돈을 대출금 상환과 동생 사업자금 등에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부취재본부=선상근기자 sun@

탐진댐 정비사업 무자격업체 선정 의혹

강진경찰, 내사 착수

강진경찰은 강진군이 발주한 탐진댐 주변 정비사업에 무자격 업체가 선정된 의혹이 제기돼 내사를 벌이고 있다.

강진경찰은 24일 강진군이 지난해 탐진댐 주변 정비 사업을 추진하면서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면허가 없는 무면허 업자와 수의 계약을 체결한 정황을 포착하고 사실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경찰은 이 과정에 모 사무관이 부하 직원을 시켜 수의 계약을 맺도록 한 것으로 보고 관련 공무원을 소환,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해당 사무관이 1000만 원 이상의 공사계약은 군에 등록된 건설업체와 체결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를 어기고 해당 업체와 1949만 원 상당의 공사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앞서 강진군은 지난해 자체 감사에서 해당 사무관의 부적절한 계약 행위를 적발했으나 훈계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중부취재본부=남철희기자 choul@

"택시요금 갚아라" 기사 10대 성추행

쌍나팔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24일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26·택시기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종범죄가 있는 피고인은 어린 피해자를 성추행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

○…이씨는 지난 5월28일 새벽 2시께 평소 알고 지내던 A(15)양을 자신의 택시로 유인한 뒤 신체특정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이씨는 지불하지 않은 택시요금 3만원을 받는다는 명목으로 A양을 불러 범행한 것으로 조사.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선배합격자가 말한다!
공무원 시험준비는 무조건 한빛고시학원에서 시작하라!
7·9급 공무원 시험 [국가직 지방직] 최다 합격! 분명한 강좌!
수강자 전원 반복학습 동영상 강의를 지원함으로써 100%학습증대와 경제적인 학습효과를 누려보십시오
7급 종합반 | 9급 종합반 | 법원서기보 | 학보 유일 소방직(전문) | 명품 "강력단과" | 7·9급 검찰직 | 9급 야간반 | 농업직/기술직 | 사회복지직 | 부사관 (육군·공군·해군)
개강 9월 1일
선착순 모집, 조기마감유의!
공무원 합격의 대세! 압도적 1위! www.hanbitgosi.co.kr
한빛고시학원
광주 전남대 후문 북구청앞 (062)234-0234
직영학원 김영편입학원 (광주 동부경찰서 뒤) 227-8088